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 만족도

Urban House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Satisfactio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계선자
목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유을용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Sun Ja, Kye
Mokwon University
Lecturer : Eul Yong, Y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tial degree of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and the financial satisfaction by objective and subjective variables, as focusing theoretical concept on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which will influence on the financial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of urban housewives is 3.49, tha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the financial satisfaction was 2.76.

(2) It showed that ability of family management ability of housewives influence on the financial satisfaction.

The planning and achievable ability showed also same tendency.

(3)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for the financial satisfaction was the housewives' subjective variables.

I. 서 론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 및 가계의 경제는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 상응하여 질적인 측면, 즉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고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 복지나 삶의 질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Andrews & Withey, 1976, Moen, 1980; 김경동, 이흥구, 신도철, 1983; 이기영, 1984; Wilhelm, Iams, Rudd, 1987)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 중 몇몇은 인간의 삶에서 재정만족도와 같은 경제적인 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Campbell, Converse와 Rodgers (1976)의 연구에서는 재정상태의 만족이 개인의 전체 생활만족도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치로 밝히고 있는데 개인의 경제적인 만족이나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보다 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에 더 의존한다고 하였다. 즉, 객관적인 경제환경보다 이러한 객관적인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더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자원을 관리하는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의해서도 가정의 경제적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금, 1993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계가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가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가계의 안정과 성장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증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도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사회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가계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때로는 기쁨이나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인플레이

이션으로 인한 가계압박이나 질병,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등 바라지 않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더욱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IMF의 구제 금융체제하에 놓여있는 우리의 경제환경은 소비생활의 위축은 물론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가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 지원은 저 성장, 고물가, 장기 경기침체, 실업 및 소비위축 등의 고통과 긴축을 수반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건전한 소비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가정경제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주부의 현명하고도 절제 있는 가계재무관리가 그 어느 시점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각 가계에게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재무관리능력에 대한 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가계재무관리능력 변인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IMF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제생활 만족 또는 주관적 재정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이 계속되면서 가정학분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가정의 경제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J. C. Yuen, 1976; S. Mammen, 1980; B. L. Dillard, 1987, 김숙이·문숙재, 1988; 이종혜, 1993;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8). 소득, 직업, 학력, 가족수 등 가정의 객관적 상황 및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즉, 소득적정감, 열망성취도, 준거집단과의 비교감 등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자원적정인지도 수준 그리고 과거 5년전과 현재의 재정상태를 비교, 평가에 의한 경제수준 향상감 및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을 파악하고 특히, 가계재무관리능력을 계획 및 수행 능력으로 구분하여 가계재무관리능력이 재정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관리자인 주부들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 주관적 변인에 의한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를 측정 한 후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능력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정의 경제복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재무관리능력

가계재무관리는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자원관리체계의 관리적 하위체계내에서 인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을 배분, 조정하는 조직적이고 목표지향적 체계이며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이다(Nickell, Rice & Tucker, 1976; 김순미, 1986). Gross, Crandall과 Knoll(1980)에 의하면 가계재무관리란 용어를 언급하여 가정의 재무관리는 가정의 가치체계를 반영하고 모든 자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며 다양한 목표달성의 교환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Deacon과 Firebaugh(1988)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정의 선택적 의지가 금전에 집중되기 때문에 관리행동에 있어서 금전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가계재무관리는 한 가계의 제한된 금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으로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Williams와 Berry(1984)는 가정내의 재정자원 할당과 가족구성원에 의한 소비의 결정은 개인은 물론 가정단위의 복지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자원수준이 낮은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의 경제복지에 만족스러워 한다면 이러한 만족은 경제적 환경보다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결과라고 Helmick과 Metzen(1983)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적 만족감은 가계를 둘러싼 객관적인 경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정관리자의 주관적인 가계재무관리능력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의 목표는 가계를 이끌어 가는 행동원리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요구를 찾아내어 분석, 비교 및 정리 검토를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요구의 변화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원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과정을 통해 가계재무관리목표를 위한 자원의 최적사용 및 조정, 구매의 다양화에 따른 상품선택의 판단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Fitzsimmons & Williams, 1976; 김병주, 1980; Grashof & Dixon, 1981; 김순미, 1986).

가계재무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Schnittgrund와 Baker(1983)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관리행동을 연구한 결과 금전관리와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는 낙관적이지만 다른 가족원의 금전관리, credit사용, 계획적인 구매능력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재무관리 행동의 주체는 가정관리자 즉, 주부라 할 수 있으나 가족원의 재정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국내연구로서 정선희와 오정옥(199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특성이 재정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남편과 부인 집단 모두 재정관리행동이 비합리적일수록 재정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의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은 부부의 재정적 일치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김연정과 김순미(1991)는 주관적 재정복지를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인과모형을 구성하여 투입변수(자원변수와 요구변수)와 변환변수(가계관리능력)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변환변수인 가계관리능력이 주관적 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계관리를 통한 간접효과는 매우 미약하며, 열망성취도, 가계소득, 직업 등의 투입변수가 주부의 주관적 재정복지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해 관리자는 목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설정 등의 계획과정과 계획

을 실천하고 검토, 조정하는 수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관리자가 재정자원 사용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가계의 만족 또는 효용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Deacon & Firebaugh, 1988; Titus, Fanslow, & Hira, 1989; Fitzsimmons, Hira, Bauer & Hafstrom, 1993; 고보선, 1996).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Deacon과 Firebaugh(1988)가 개념화한 관리과정인 계획과 수행을 근거로 가정관리자의 가계관리능력과 가정의 경제복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재정관리과정을 계획과 수행의 두 차원으로 분리하고 산출요소로 순자산과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을 선정한 다음 체계이론에 적용시켜 연구한 결과 가계관리능력이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tus 등(1989)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계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보선·이영호·임정빈(1997)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가계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Titus 등 1989; 고보선·이영호·임정빈, 1997)결과 계획은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행은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계획과 실제 수행간에 차이가 생기면 이를 조정하거나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과정을 말한다. 계획과 마찬가지로 수행 또한 여러 선행 연구(Titus 등, 1989; 김순미, 1993; 홍향숙, 1997;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8)에서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계의 재정만족도에는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주부의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능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재정 만족도

재정적 만족은 개인 및 가계가 원하는 재정적 만족수준과 실제적인 재정적 만족간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으며, 재정자원의 제약과 재정적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순미, 1993). Davis와 Helmick(1985)은 재정만족도에 경제적 안정도를 하위영역으로 포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가계의 경제적 만족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재정안정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주관적 재정안정도는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재정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은퇴 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써 재정적 자원의 확보정도라 정의하였다. Diener(1985)는 재정적 안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은 각 생활 영역에서의 현실과 자신이 바라는 목표간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에 관한 객관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홍향숙(1997)은 재정만족도를 요구와 자원을 투입하여 구체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한 결과 요구의 충족과 자원의 사용이라는 일련의 산출을 얻게 되고 그 성취정도는 만족감으로 나타나 결국 재정만족도는 재무관리의 결과로 성취되는 산출요소로서 가계관리자가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의 재정적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가계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경제적 복지(노자경, 1991; 박미금, 1993; 김민정, 1994), 재정안정도(Davis & Helmick, 1985; Beutler & Mason, 1987; 김연정, 1991), 재정만족도(이중혜, 1993; 김순미, 1993; 주인숙·이연숙, 1996), 경제생활만족도(김숙이, 1987; 박미금, 1993)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거나 또는 개념이 동일시되고 있다.

재정만족도는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재정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계가 경험하는 재정문제는 가족의 소비행동이 비합리적일 때, 혹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주부의 가계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재정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감은 가족원의 정서적, 주관적 반응으로서 관리과정 전체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도 있고 특정부분과 관련하여 경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만족도는 가정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질과 양, 자원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투입요소와 가족구성원의 관리기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만족도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주인숙과 Sown(1991)은 소득수준, 가계의 필수재 구입에 필요한 화폐에 대한 수준,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부채의 양, 저축수준, 미래 대비를 위한 화폐 정도에 대한 하위영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Schnittgrund와 Baker(1983)는 소득, 저축, 부채, 가구주의 직업에 대한 만족을 하위영역으로, Davis와 Helmick(1985)은 소비수준, 자산, 경제적 안정도를 재정만족도로 구성하면서 특히, 경제적 안정도를 소득과 저축의 비율, 재정위험에 대한 준비정도, 노후의 안정에 대한 만족으로 세분하고 있다.

Garner(1982)는 소득 적정도와 경제적 복지, 재정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고, Lytton, Garman와 Daill(1987)은 재정만족도를 현재 생활표준 만족, 소득적정, 신용카드 파다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하위영역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로 노자경(1991)은 자산, 소득, 지출전반과 각 항목별로 척도를 구성하고 있고, 김숙이(1988)는 공급생활영역, 금융생활영역, 구매생활영역, 소비생활영역, 생산생활영역으로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하위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종혜(1993)는 저축비율, 순자산, 비상준비금, 교육비, 주거, 노후대비, 소득수준 등의 변인을 재정만족도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

Walker, Tremblay와 Parkhurst(1984)는 가계재무관리행동이 가정경제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는데 가계재무관리행동이 가정경제생활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으나 가계재무관리행동이 효율적일수록 가계관리에 대한 질을 더 높게 지각하고 이러한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생활의 질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정요소로서 가계관리과정을 계획과 수행의 두 차원으로 분리하고 산출요소(종속변인)로 순자산(객관적 경제복지 지표)과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주관적 경제복지 지표)의 두 차원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가계관리 행동 중 수행능력보다 계획능력이 더 우수하였으며 두 가지 가계관리 행동 중에서 계획능력은 순자산에 영향을 미쳤으나 수행능력은 순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능력이 우수할수록 순자산이 많았으나 수행능력은 가정의 순 자산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에 대한 가계관리행동의 영향력은 순 자산의 경우와는 반대로 계획능력의 영향력은 없었으나 수행능력의 경우 수행능력이 우수할수록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정과 김순미(1991)도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이론에 근거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과정변인으로 가계관리 변인을 선정하여 산출요소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가계관리 능력이 우수할수록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그러나 가계관리능력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잇는 매개변인으로 작용은 하나 그 영향력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의 연구에 의하면 변환변수인 재무계획은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재무관리수행을 경유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관리수행은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여 재무관리계획보다는 재무관리수행이 재정만족도에 더욱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tus, Fanslow와 Hira(1989), 김연정·김순미(1991),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재무계획과 재무수행을 포함한 가계재무관리변인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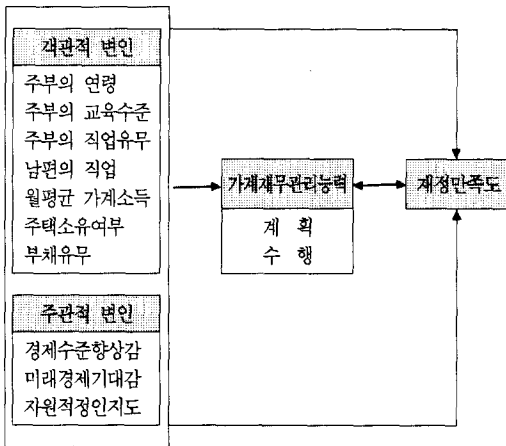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주부의 객관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이 가계재무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주부의 객관적 변인 및 주관적 변인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변인, 주관적 변인 및 가계재무관리능력 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독립변인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주관적 변인 문항, 가계재무관리능력 문항과 연구의 종속변인인 재정만족도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주관적 변인 척도

(1) 경제수준향상감 및 미래경제기대감 척도

심리적 변인인 경제수준향상감 및 미래경제기대감은 가계의 경제상태를 과거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고 앞으로 5년 후의 경제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척도로 Davis와 Helmick(1985), Mack과 Lansley(1985), 임정(1988), 이종혜(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경제수준향상감은 가계의 생활수준이 5년 전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의미하며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에 비해 경제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미래경제기대감은 가계의 생활수준이 5년 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며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원적정인지도 척도

자원적정인지도는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시간과 금전자원 영역에서 각각 3문항씩 선정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78이다.

2) 가계재무관리능력 척도

가계재무관리능력은 가계관리자가 가족원의 욕구 충족과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 분배 및 사용 등에 대하여 계획, 수행하여 관리하는 행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dwin과 Carroll(1986), Fitzsimmons등(1993), Prochaska -Cue(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 5문항과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 5문항을 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재무관리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의 Cronbach's α 는 각각 .77, .72이다.

3) 재정만족도 척도

재정만족도척도는 Davis와 Helmick(1985)과 이종혜(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저축액 만

족, 순자산 만족, 소득수준 만족, 소비수준 만족, 재정위기에 대한 비상준비금 만족, 노후자산대책 만족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서 5점에 가까울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Cronbach's α 는 .89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1998년 4월 6일~3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800부의 질문지 중 61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35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표집된 자료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Packag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Cronbach's α , ANOVA, 사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2.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 도시주부의 일반적인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는 <표 2>와 같으며 5점 만점으로 한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점수는 3.49로 중간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경제적 대 위기를 맞고 있는 IMF구제금융시대 현명하게 가계를 관리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주부들의 능력을 고지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하위영역으로 볼 때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의 평균점수는 3.44,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의 평균점수는 3.53으로 수행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주부의 재정만족도 수준은 2.76으로 평균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만족수준이 나타났다. 가

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는 모두 평균점수를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은 우수한 편이며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문숙재(1988), 김혜정(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3. 가계재무관리능력

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능력의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주부의 연령($p < .05$), 직업유무($p < .001$), 월평균가계소득($p < .05$), 경제수준 향상감($p < .05$), 미래경제기대감($p < .05$), 자원적정인지도($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36세~45세에 속하는 주부, 비 취업주부, 월평균가계소득이 351만원~1000만원의 집단에 속하는 주부, 경제수준향상감, 미래경제기대감 및 자원적정인지 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계재무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재무관리능력의 하위영역인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은 주부의 연령($p < .05$), 직업유무($p < .05$), 주택소유여부($p < .05$), 미래경제기대감($p < .05$), 자원적정인지도($p < .01$)의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이 36세~45세 집단에 속하는 주부, 비 취업 주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부, 미래경제기대감 및 자원적정인지도 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계획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36세~45세에 속하는 주부의 경우 가정생활주기 상 비교적 가정생활의 여유가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가계의 재무관리 계획행동에 보다 시간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비취업 주부인 경우에는 가계재무관리를 포함한 가정관리행동상의 시간적 여유가 보다 많고 가정의 소득을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보다 합리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소유여부별로 볼 때 주택을 소유한 집단의 주부가 계획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미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이외의 또 다른 가정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계획능력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 = 535)

변 인	구 분	빈도(%)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0(7.53)
	고졸	241(45.39)
	전문대졸	54(10.17)
	대졸이상	196(36.91)
		531(100)
주부의 연령	35세이하	219(41.24)
	36~45세	206(38.79)
	46~60세	106(19.96)
		531(100)
주부의 직업유무	취업	276(52.08)
	비취업	254(47.92)
		530(100)
남편의 직업	전문, 관리직	185(37.60)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218(44.31)
	생산직	63(12.80)
		492(100)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208(39.47)
	201~350만원	208(39.47)
	351~1000만원	111(21.06)
		527(100)
주택소유여부	있다	342(64.170)
	없다	191(35.83)
		533(100)
부채유무	있다	214(40)
	없다	321(60)
		535(100)
경제수준향상감	상	179(33.5)
	중	196(36.3)
	하	160(29.9)
		535(100)
미래경제기대감	상	288(53.8)
	중	137(25.6)
	하	110(20.6)
		535(100)
자원적정인지도	상	143(26.7)
	중	202(37.8)
	하	190(35.5)
		535(100)

* 경제수준향상감, 미래경제기대감, 자원적정인지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상; M+1/2SD이상, 중; M+1/2SD~M-1/2SD, 하; M-1/2SD이하)

〈표 2〉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척도의 범위
가계재무관리능력	3.49	0.54	1~5
가계재무관리계획능력	3.44	0.67	1~5
가계재무관리수행능력	3.53	0.55	1~5
재정만족도	2.76	0.82	1~5

〈표 3〉 가계재무관리능력

(N = 535)

변수	집단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		전체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52	0.83	3.78A	3.26*	3.65	1.91
	고졸	3.48		3.53B		3.51	
	전문대졸	3.35		3.49B		3.42	
	대졸이상	3.42		3.48B		3.45	
주부의 연령	35세이하	3.37B	3.41*	3.48	1.82	3.42B	3.54*
	36~45세	3.54A		3.56		3.56A	
	46~60세	3.43AB		3.58		3.50AB	
주부의 직업유무	취업	3.38B	5.53*	3.44B	15.31***	3.41B	11.32***
	비취업	3.52A		3.63A		3.57A	
남편의 직업	전문, 관리직	3.60	0.53	3.51	0.96	3.47	0.89
	사무직	3.47		3.51		3.47	
	판매서비스직	3.42		3.63		3.56	
	생산직	3.44		3.60		3.60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미만	3.42	0.73	3.54A	5.09**	3.48AB	3.01*
	201~350만원	3.48		3.59A		3.54A	
	351~1000만원	3.96		3.39B		3.39B	
부채유무	없다	3.44	0.02	3.48	0.04	3.48	0.06
	있다	3.45		3.49		3.49	
주택소유여부	있다	3.49A	5.39*	3.54	0.49	3.52	3.68
	없다	3.35B		3.51		3.43	
경제수준향상감	상	3.54	2.91	3.62A	4.25*	3.58A	3.93*
	중	3.42		3.46B		3.44B	
	하	3.37		3.52AB		3.45B	
미래경제기대감	상	3.51A	4.83*	3.55	0.92	3.54A	3.56*
	중	3.29B		3.48		3.38B	
	하	3.47A		3.53		3.51B	
자원적정인지도	상	3.97A	6.22**	2.96	1.04	3.67A	11.43***
	중	3.70B		2.93		3.42B	
	하	3.64B		2.80		3.41B	

*p<.05 **p<.01 ***p<.001

사료된다. 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부인 경우 가계재무관리상의 더욱 합리적인 계획능력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계획능력이 주택을 소유한 주부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은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부일수록 미래 주택을 장만하기 위하여 혹은 주택이외의 다른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합리적인 재무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경제기대감 및 자원적정인지도 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계획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기에 자신의 가정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은 주부들은 그만큼 합리적인 재무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은 주부의 교육수준($p < .05$), 직업유무($P < .001$), 월평균가계소득($p < .01$), 경제수준향상감($p < .05$)의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주부, 비취업주부, 월평균가계소득이 201만원~350만원인 집단의 주부, 경제수준향상감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인 경우 취업주부에 비하여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보다 많기 때문에 상품구매 시 비교구매를 한다거나 세금 혹은 공과금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의 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월평균가계소득이 201만원~350만원인 집단의 주부가 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의 소득정도가 중·상계층인 경우 이들은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 가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관리 수행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수준향상감이 높은 주부일수록 수행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나 이는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김연정·김순미(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4. 재정만족도

도시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에 따른 재정만족도의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주부의 교육수준($p < .01$), 남편의 직업($p < .001$), 월평균가계소득($p < .001$), 부채유무($p < .01$), 주택소유여부($p < .001$), 경제수준향상감($p < .001$), 자원적정인지도($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주부, 부채가 없는 주부, 주택을 소유한 주부, 경제수준향상감 및 자원적정인지 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재정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볼 때,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 및 가계관리에 대한 정보 접촉빈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가계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기영(1984), 임정(1989), 노자경(1991), 이종혜(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남편의 직업은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매우 높은 영향력($p < .001$)을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에 속하는 집단의 주부가 가장 높은 재정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직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재정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직종에 따라 소득의 정도가 달라지는 폭이 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 및 대기업주인 집단은 무직, 단순노무자, 피고용 기능공 집단보다 더 나은 경제생활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 김숙이·문숙재(1988)의 연구와 일치하며, 남편의 직업이 위가 주부의 생활의 질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기영(198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가계소득 또한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여, 가정의 현실적인 수입의 정도가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소득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므로 재정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김연정·

〈표 4〉 재정만족도

(N = 535)

변수	집단	빈도	평균	F값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0	2.48A	4.75**
	고 졸	237	2.69A	
	전문대졸	54	2.89AB	
	대졸이상	195	2.94B	
주부의 연령	35세이하	218	2.78	0.02
	36~45세	202	2.83	
	46~60세	106	2.64	
주부의 직업유무	취업	273	2.77	0.02
	비취업	252	2.78	
남편의 직업	전문, 관리직	185	2.97A	6.65***
	사무직	217	2.71AB	
	판매서비스직	61	2.61B	
	생산직	25	2.40C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07	2.47C	29.24***
	201~350만원	204	2.89B	
	351~1000만원	111	3.13A	
부채유무	없다	212	2.88A	6.89**
	있다	318	2.69B	
주택소유여부	있다	340	2.85A	13.21***
	없다	188	2.59B	
경제수준향상감	상	179	3.30A	26.56***
	중	194	2.80B	
	하	157	2.41C	
미래경제기대감	상	286	2.84	2.71
	중	136	2.65	
	하	108	2.71	
자원적정인지도	상	143	3.22A	49.18***
	중	255	2.79B	
	하	137	2.39C	

*p<.05 **p<.01 ***p<.001

김순미(1991), 이종혜(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 간접적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부채가 없는 가정과 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주부일수록 재정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택소유여부가 경제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Hafstorm과 Dunsing(1973),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박미금(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특히, 주택의 소유를 자산 및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의 인식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가정의 경제목표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라 경제적인 만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경제수준향상감이 높은 주부일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재정적 만족은 가계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부자신의 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와 기대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변인임을 밝혀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김민정(1984), Davis와 Helmick(1985), 임정(198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은 주부는 그렇지 않은 주부에 비하여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IMF이후 불안정한 경제환경 하에서 가족원이 이용 가능한 금전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족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자원인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가계의 재정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개인의 복지감은 객관적 자원상태와의 관계보다 자원 상태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가 더 강하다고 한 Campbell, Convers와 Rodgers(197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경제생활만족도에는 가계관리의 수단이 되는 경제자원의 소유여부보다 자원에 대한 평가정도의 영향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박미금(199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간의 상관관계

〈표 5〉에서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 사이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하위영역인 가계재무관리계획능력과 재정만족도 사이에는 $p < .05$ 수준에서 그리고 가계재무관리수행능력과 재정만족도 사이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가계재무관리수행능력은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r = .325$)로 가계재무관리수행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로써 주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및 수행행동을 포함한 가계재무관리능력은 재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재정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차원으로서 가계관리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재무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며 주부의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제도의 확충 및 정확한 가계정보와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가계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재정적 만족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상대적 기여도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변인, 주관적 변인,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 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이때 제 1단계는 객관적 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는 주관적 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3단계에는 가계재무관리능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객관적 변인 중 주부의 연령

〈표 5〉 가계재무관리능력과 재정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변 인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	가계재무관리능력	재정만족도
가계재무관리 계획능력	1.00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	.520***	1.00		
가계재무관리능력	.842***	.898***	1.00	
재정만족도	.109*	.325***	.262***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재정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가계재무관리능력의 상대적 기여도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주부의 연령	-0.01	-0.13**	-0.01	-0.10	-0.01	-0.10*
주부의 교육수준	0.04	0.06	0.005	0.007	0.02	0.02
월평균 가계소득	0.001	0.27***	0.0008	0.14***	0.0009	0.15***
부채액	-0.26	-0.16***	-0.17	-0.10**	-0.18	-0.10**
주부의 직업유무	-0.07	-0.04	0.01	0.009	0.06	0.03
남편의 직업	-0.06	-0.09	-0.03	-0.05	-0.03	-0.04
주택소유여부	0.20	0.12*	0.08	0.05	0.08	0.05
경제수준향상감			0.15	0.18***	0.14	0.17***
미래경제기대감			-0.04	-0.04	-0.04	-0.05
자원적정인지도			0.46	0.38***	0.41	0.34***
가계재무관리능력					0.32	0.21***
상수	2.97		1.00		-0.069	
R ²	0.16		0.37		0.42	
Adj R ²	0.14		0.35		0.40	
F값	12.82***		23.86***		26.37***	

*p<.05 **p<.01 ***p<.001

($\beta=-.13$), 월평균가계소득($\beta=.27$), 부채액($\beta=-.16$), 주택소유여부($\beta=.12$)등이 영향변인이었다. 다음 단계에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월평균가계소득($\beta=.14$), 부채액($\beta=-.10$), 경제수준향상감($\beta=.18$), 자원적정인지도($\beta=.38$)등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가계재무관리능력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부의 연령($\beta=-.10$), 월평균가계소득($\beta=.15$), 부채액($\beta=-.10$), 경제수준향상감($\beta=.17$), 자원적정인지도($\beta=.34$), 가계재무관리능력($\beta=.2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처음 1단계에서 객관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16%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7%로 1단계에 비해 2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주부의 재정만족도는 객관적 변인에 의해서보다 주관적, 심리적 변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보다는 그 자원에 대한 지각정도가 경제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박미금(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가계재무관리능력 변인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2%로 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로 가계재무관리능력 또한 재정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월평균가계소득($p<.001$)은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재정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가족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소유여부($p<.001$)는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의 주택의 소유를 통한 재정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가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민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 혹은 저렴한 금리의 은행 대출의 확대 등을 실현시켜 서민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주택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만족도는 가정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외에 현재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향상감($p<.001$) 및 미래경제기대감($p<.001$) 혹은 자원적정인지

도($p < .001$)와 같은 주관적 변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있어서 향상감이나 기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가족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같아도 자신들이 기대하고 인지하는 생활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원적정 인지수준에 따라 재정적 만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관리자는 자신의 생활표준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네째,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이 우수할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재무관리 수행능력과 재정만족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r = .325$)를 보였다. 가계관리자가 이미 의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재정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가계재무관리를 통해서만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오늘날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예컨대 주부 자신은 생필품을 포함한 제품들의 구입 시 계획 및 비교구매를 한다거나,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의 영수증을 항상 보관해야 할 것이며 가계의 안정을 위하여 단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으로서도 가계관리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재무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주부의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제도의 확충 및 정확한 가계정보와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가계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한 가정의 경제복지 수준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만족도는 주관적 즉 심리적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계의 재정복지를 파악하려고 할 경우에는 객관적 경제지표보다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경제수준향상감, 미래경제기대감 및 자원적정인지도 변인 이외에 준거집단 비교감 혹은 생활정보활용도, 가치성향, 의사소통도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주부의 재정만족도는 가정 내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가정 외적인 환경 즉 사회적·국가적 경제환경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정외적인 환경변화, 예를 들면 'IMF구제금융제도에 대한 인식'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등에 따른 세분화된 객관적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동·이흥구·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의 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 기념논총.
- 2) 김민정(1984). 가계소득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3)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적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2호.
- 4) 김순미·김연정(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권 4호.
- 5) 김숙이·문숙재(1988). 도시가계의 재정적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권 2호.
- 6) 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 복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은양(1994). 부부간 의사소통과 가계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지애(1994). 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재정적 논쟁이 재정관리 만족도와 생활복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9)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0)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 및 관련 변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문숙재·곽인숙(1992). 주거환경 스트레스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권 3호.
- 12)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13)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4)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권 2호.
- 15)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편.
- 16)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 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7)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18)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권 3호.
- 19) 정선희(1987). 도시주부의 재정문제 인지 정도와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0) 정선희·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2호.
- 21)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 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권 6호.
- 22) Andrew, F. 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ing. New York; Plenum Press.
- 23) Barbra J. Slusher, Sandra A. Helmick & Edward J. Metwen(1983). Perceived economic well-bing; The relation impact of value concordance and resource adequacy, in M. M. Dunsing(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perceived economic well-bing, Urbana II; University of Illinois.
- 24) Beutler. Ivan F., Mason, Jerald W.(1987). Family Cash-flow Budget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 25)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26) Davis, Elizabeth Patricia & Helmick, Sandra A. (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dndmics research Journal, Vol.14, No1. September.
- 27) Deacon, Ruth E. & Firebaugh, Francille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Allyn and Bacon. Inc Boston.
- 28) Diener, E. C.(1984). Subjective well-bing, Psychological Bulletin.
- 29) Dillard, Betty L(1987). Household production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economic circumsta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30) Fitzsimmons, Cleo & Willams, Flora(1974). The family economy, Edwards Brother, Inc., Ann Arbor Michigan.
- 31) Hafstrom, Jeanne L. & Dunsing, Marilyn M. (1978).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2, December.
- 32) Gross, Irma H., Crandall, Elizabeth W. & Knoll, Marjorie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33) Malowe Julia & Sporoles, George B(1986). Economic determinants of family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 34) Park, M. S(1992). Ecological Modeling of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35) Schnittgrund, Karen P. & Baker(1983). Georgianne,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

- 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 36) Schram, Vicki R & Hafstrom, Jeanne L(1986). Family resource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 37) Titus, Fanslow, Hara(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 38) Walker, Florence S., Tremblay, Jr., Kenneth R. & Parkhurst, Anne M., Financial management and family life, *Family Strengths*.
- 39) Williams, Flora L. & Berry, Ruth(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 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 40) Yuen, J. C.(1976).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economic well-being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